

이현지 “이젠 더 이상 적수가 없다” “적응은 이제 끝... 올해는 꼭 우승할 것”

제51회 춘계 전국초중고 유도연맹전 대회 여고 무제한급 결승전서 이혜빈 제압 정상 남고 -60kg 결승 오상우, 후배 이재준 꺾어

‘무적(無敵)’ 이현지(남녕고 1)가 제51회 춘계 초중고등학교 유도연맹전 겸 국제 유, 청소년파견 선발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고등부 데뷔 후 2연승 가도를 달렸다.

이현지는 28일 경북 문경시 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고부 무제한급 결승전에서 이혜빈(경민고 3)에 지도승을 거두며 정상에 올랐다. 이현지는 지난 15일 있었던 2023 순천만국가정원컵전국유도대회 준결승전에 이어 이혜빈을 다시 한번

꺾으면서 당분간 적수를 찾기 힘들 전망이다. 이혜빈은 이현지가 입학하기 전까지 지난 2년간 최강의 자리를 지킨 1인자였다.

이현지는 이날 첫 경기에서 허가은(대구체고)을 허리후리기로 한 판승을 따낸데 이어 임한주(전북 여고)에 기권승을 거두고, 심보경(영선고)마저 발다리 한판승으로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준결승(양지연, 광영여고)에서도 기권승을 거둔 이현지는 결승전에서 함과 기량 면에서 이혜빈을 압도했다. 때문에

이혜빈은 이현지를 꺾기 위해 위장 공격을 시도하다 지도를 세 차례나 받으며 무너졌다.

선후배 대결로 관심을 끌었던 남고부 -60kg급 결승전에서는 오상우가 이재준을 물리치면서 정상을 지키는데 성공했다. 특히 오상우는 이날 준결승전까지 6경기 모두 한 판승을 거두면서 최강의 면모를 과시했다. 오상우는 이재준과의 결승전에서 허벅다리 걸기로 한판승을 거두며 순천만국가정원컵에 이어 2연승을 이어갔다. 오상우와 맞선 신입생 이재준도 패기를 앞세워 파죽지세로 결승전까지 진출하며 기염을 토했다.

남고부 -66kg급의 강성현, -73kg급의 고지운, 여고부 -52kg급의 홍규리는 3위에 입상했다. 조상윤기자

제주출신 KPGA 투어 4년 차 고군택 작년 모든 대회 출전... 프로무대 안착 전지훈련서 샷 정확성 높인데 중점 “제주서 우승해 도민의 자랑 되고 싶다”

제주출신 ‘투어 4년 차’ 고군택(24·대보건설)이 2023 시즌 우승을 향해 본격 항해에 나선다. 그 첫 무대는 제18회 DB손해보험 프로미오픈(4월13-16일)이며, 이어 일주일 뒤 제주(골프존 카운티 오라, 4월20-23일)에서 열리는 ‘골프존 오픈 in 제주’다.

고군택은 최근 KPGA와의 인터뷰를 통해 “올해를 위해 준비를 많이 했다. 기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 층 더 성숙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목표는 KPGA 코리아투어 첫 승이다. 또한 한 해 동안 꾸준한 활약을 펼쳐 제네시스 포인트 TOP10에 진입할 것”이라는 목표를 밝혔다.

고군택은 아마추어 때인 2016년에는 국가대표, 2017년에는 국가상비군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2019년 11월 KPGA 코리아투어 QT에서 공동 9위에 오르며 2020년 투어에 데뷔했다.

데뷔 첫해 고군택은 출전 10개 대회 중 9개 대회에서 컷통과했다. 이듬해에는 17개 대회 중 13개 대



올 시즌 KPGA 코리아투어 첫 승과 제네시스 포인트 TOP10 진입을 목표로 준비를 마친 제주출신 고군택. KPGA 제공

회에서 컷통과해 제네시스 포인트는 25위(2045.41P)에 위치했다. 총 2억 378만여원의 상금을 벌어들여 제네시스 상금순위 23위에 자리했다. 3위를 기록한 2021년 ‘제네시스 챔피언십’은 고군택에게 아쉬움이 많은 대회였다. 당시 1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8개로 10언더파 62타를 작성해 코스레코드를 경신했다. 이후 3라운드까지 단독 선두를 유지했고 최종라운드를 3타 차 단독 선두로 나섰다. 하지만 최종일 하루에만 6타를 잃고 최종 3위로 대회를 마쳐야 했다.

고군택은 지난해에도 시즌 전 대회인 21개 대회에 출전했다. 시즌 최고 성적 ‘KB금융 리브챔피언십’ 공동 4위 포함 TOP10에 3회 진입했다. 13개 대회에서 컷통과했고 제네시스 포인트 29위(2588.2P), 제네시스 상금순위 35위(1억 8805만여원)에 이름을 올렸다. 2년 연속 1억원 이상의 상금을 획득했다.

KPGA 무대에 안착하고 있는 것을 입증했다.

올해는 꼭 우승컵을 품에 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한 고군택은 “올 시즌을 위해 2월 한 달 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전지훈련을 했다. 샷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구질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에서 우승해 ‘도민의 자랑’이 되고 싶다”며 “올해 투어 일정을 보면 제주에서 2개 대회가 열리는데 이 대회 중에서 꼭 첫 승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상윤기자



남녕고 임병기 감독, 이현지, 홍규리, 오상우, 이재준, 강성현, 고지운(왼쪽부터).

올해 프로야구 올스타전 부산서 열린다

KBO, 7월 15일 사직구장 개최 확정... 수비상 신설

올해 프로야구 올스타전은 16년 만에 부산에서 열린다.

한국프로야구위원회(KBO)는 27일 열린 2023년 제2차 이사회를 통해 규약 및 리그 규정, 추진 사업 등을 심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사회는 오는 7월 15일 개최 예정인 2023 KBO 올스타전 개최 장소를 부산 사직구장으로 확정했다. 사직 구장의 올스타전 개최는 2007

년에 개최된 이후 16년 만이다. 이와 함께 감독, 코치, 선수의 올스타전 출전 수당이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리그 차원의 공식 수비상 제정으로 수비의 가치를 인정하고 리그 수비 기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KBO 수비상(가칭)을 신설하기로 했다. 후보, 수상자 선정 등은 추후 실행위원회에서 확정해 발표

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일한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 등재 연장 신청 시 기존 신규 신청서 및 진단서 제출 규정을 1회에 한해 추가 진단서 없이 신청서 제출만으로 연장 가능하게 개정했다.

이와 함께 KBO와 10개 구단은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스(WBC) 등 국제대회에서 연이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을 올린 것에 대해 깊은 위기의식을 가지며, 리그 경기력과 국가대표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서귀포시 한국 리틀야구 성지로 키운다

이달 31~4월8일 제2회 칠십리전국리틀야구 개최 10월 MLB CUP·제주도지사배 유소년시리즈도

서귀포시가 올해 굵직한 국내의 행사를 잇달아 개최하며 대한민국 리틀야구의 성지를 꿈꾼다.

서귀포시와 (사)한국리틀야구연맹(회장 유승안)은 올해 2023 제2회 서귀포 칠십리 전국리틀야구대회를 시작으로 제4회 MLB CUP 전국리틀야구대회(10월)와 20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세계리틀야

구초청대회(10월) 등 유소년 시리즈 대회를 차례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우선 이들은 오는 31일부터 4월 8일까지 서귀포시 강창학종합경기장 내 야구장 3개소에서 서귀포 칠십리 전국리틀야구대회를 개최한다.

서귀포시가 주최하고 한국리틀

야구연맹이 주관하는 이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활약 중인 리틀야구단 34개팀, 선수단 1200여명이 참가해 열린 경쟁을 펼친다.

한국리틀야구연맹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오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8개조 예선 조별리그에 이어 4월 4일부터는 16강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진다. 최종 승자는 4월 8일 결승전에서 가려진다.

서귀포 칠십리 전국리틀야구대회는 지난해 첫 대회를 시작으로 초·중·고 학생 야구의 저변 확대와 대회를 통한 전국 팀들 간의 친목 도모와 어려운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시작됐다. 백근탁기자 haru@ihalla.com

취 축 임
CONGRATULATIONS

**중남 예산
신양중학교 교장**



문준걸 (2회) 동문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남녕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고흥기** 외 동문 일동

선 축 발
CONGRATULATIONS

**2023년
볼링 국가대표**



오병준 (30회) 동문
(인천교동공사 소속)

**2023년
태권도 국가대표**



강상현 (33회) 동문

선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남녕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고흥기** 외 동문 일동

취 축 임
CONGRATULATIONS

제주고산농업협동조합장



고영찬

제주고산농업협동조합장(제16대) 취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고산농협 여성조직장 일동